

월산 큰스님의 선사상(1)*

- 수행과정과 참구화두를 중심으로 -

한태식(보광)**

• 목 차 •

I. 머리말

II. 수행과정

1. 만공스님의 ‘이뵈고’ 화두
2. 금오스님과의 문답
3. 토굴 수행과 청빈
4. 오도송과 덕승선맥의 전승

III. 월산스님의 참구화두

1. ‘이뵈고’ 화두
2. ‘이뵈고’가 화두가 아니라는 주장
3. ‘시심마(是甚麼)’ 화두의 전개
4. ‘이뵈고’ 화두의 실참법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9월 1일, 월산문도회가 주최하고 대각사상연구원이 주관한 <월산대종사의 생애와 삶>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대각사상연구원장.

© 『大覺思想』 제32집 (2019년 12월), pp.87-136.

한글요약

본 논문은 월산스님(1913~1997)의 선사상 중 일부를 논구해보았다. 이번 논문에서는 월산스님의 선수행과정과 참구화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 1945년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으로부터 ‘이뵈고’ 화두를 받아 정진하였다. 두 번째는 금오스님으로부터 ‘돌맹이 화두’ 이뵈고를 재점검 받으면서 용맹정진의 결심을 굳히게 된다. 세 번째는 1948년 경 봉암사결사에 참석하여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共住規約대로 수행하였다. 네 번째는 1953년 청도 적천사 도솔암 토굴에서 가난과 허기로 철저히 홀로 수행정진에 전념하였다. 여기서 큰 힘을 얻고 오로지 ‘이뵈고’ 화두에만 몰두하였다. 다섯 번째는 1968년 10월 금오스님의 입적을 앞두고 오도송을 읊어 경허스님으로부터 전해져온 덕숭문중의 선맥을 계승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 1974년 불국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석굴암에서 토굴수행과 불국선원을 개창하여 후학을 지도하였다.

다음으로 월산스님의 참구화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월산스님은 1945년 만공스님으로부터 ‘이뵈고’ 화두를 받아 선문에 들게 되었다. ‘이뵈고’ 화두를 참구하면서 처절히 수행정진한 끝에 22년 만에 금오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월산스님의 삶과 수행은 ‘이뵈고’가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는 ‘이뵈고’ 화두가 화두가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의 학설을 소개하고 이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뵈고’ 화두의 전제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월산스님도 전제어를 말하면서 ‘이뵈고’를 참구하라고 설법하였다. 그런데 ‘이뵈고’는 화두가 아니라고 하는 학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셋째, 是甚麼 화두의 전개에 대해 역사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용성스님은 육조혜능으로부터 그 연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다가 서산대사 등을 거쳐 근세에 와서 경허스님과 용성스님이 활발하게 ‘是甚麼’ ‘이뵈고’ 화두로 제자들을 접인하였음을 밝혔다. 여기에는 반듯이 전제어가 있으며, 이를 단순화 시켜서 ‘이뵈고’하라고 지도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넷째, 현대 우리나라 선원에서 ‘이뵈고’ 화두의 실참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현재 선원에서 ‘이뵈고’의 실참수행방법은 선원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월산스님의 ‘이뵈고’ 화두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밝혔으며, 철저한 수행으로 덕숭선맥을 계승한 선지식의 수행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주제어

월산스님, 금오스님, 만공스님, 용성스님, 시심마, 이뵈고, 화두, 돌맹이 화두, 적천사 토굴, 석굴암, 불국선원, 불국사

I. 머리말

성림당 월산큰스님(1913~1997)은 대한불교조계종이 가장 어렵고 한국전통불교가 풍전등화격일 때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종단을 안정화 시켰고, 폐허되고 관광사찰이었던 불국사를 중창하였으며, 불국선원과 강원, 법보신문 등을 세워 수행, 포교사찰로 면모를 일신하였다. 비교적 여유 있던 불국사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청빈과 검소가 몸에 배었으며, 입적 후 남긴 것이라고는 주장자와 몇 벌의 승복뿐이었다.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하고 각 본사의 주지를 여러 곳 하였으나 소임이 끝나면 본인의 자리는 토함산 석굴과 불국사 선원이었다. 이러한 월산큰스님(이하 존칭 생략)에 대해서 성림문도회와 불국사에서는 여러 가지 유업계승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학술적 조명을 시작하게 되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최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본 세미나는 성림문도회와 대각사상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준비하였으며, 이번 주제는 “월산대중사의 삶과 사상”이라는 다소 방대하게 잡았다. 그 중에서 논자가 발표할 부분은 ‘월산큰스님의 선사상(1)’인데 처음에는 자료도 많지 않고 하여 단편으로 쓰려고 하였으나 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 새로운 자료들이 나와서 한편의 논문에 수용하기에는 무리라서 1, 2편으로 나누어 이번에는 1.수행과정과 2.월산스님의 참구화두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수행과정에서는 만공스님으로부터 ‘이뵈고’ 화두를 받아 처절한 수행과정을 거치면서 금오스님의 임종직전에 오도송을 지어 바치므로 덕숭선맥을 계승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구화두에 대해서는 ‘이뵈고’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과 본인의 경험담, 제자들의 화두지도 방법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근에 일부학자들에 의해 ‘이뵈고’는 화두가 아니라고 하는 학설을 소개하면서 그 문제점을 밝히고, 용성스님께서 주장하는 육조혜능에서부터

시심마 화두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철스님의 ‘이뿔고’ 화두 참구법과 종단과 수좌회에서 편찬한 『간화선』에서 현재 각 선원에서 지도하고 있는 ‘이뿔고’ 화두 실참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월산큰스님의 선사상(2)’에서 수행지도방법과 월산스님의 선사상의 특색인 ‘중도선’ 및 바다의 실크로드에서 중국 달마대사의 소립굴과 토함산 석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II. 수행과정

1. 만공스님의 ‘이뿔고’ 화두

월산큰스님(이하 스님으로 존칭 생략함)은 1913년 5월 1일에 함경남도 신흥군 동상면 원평리에서 출생하여 고향의 서숙(書塾)에서 한학을 익히고 신학문도 공부하였다.¹⁾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앓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입적 1년 전에 『불교춘추』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내가 출가하기 전에도 집에 있을 때 방 가운데에 자복을 깔고 좌선을 했는데 그때 참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명상에 들었어, 훗날 출가하여 금오스님으로부터 그 공부가 바로 참선이라고 알았어요.²⁾

1) 月山門徒會 편, 「연보」,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369에는 1912년 5월 5일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있다.

위의 책, 「행장」과 智冠編 「慶州 佛國寺 聖林堂 月山大宗師碑文」,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0. p.1338 불국사에는 「聖林堂 月山大宗師之碑」로 세워져 있다. 비문에서는 1913년(불기 2457) 5월 초하루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연보」와 『불교춘추』에서는 1912년 5월 5일 출생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불국사에서는 1913년 음력 5월 1일을 생신일로 기념하고 있다.

최석환 인터뷰 「참선만이 살길이다」, 『불교춘추』 3호, 불교춘추사, 1996, 5, p.16.

2) 최석환 인터뷰, 「참선만이 살길이다」, 『불교춘추』 3호, 불교춘추사, 1996, 5, p.17.

라고 슬회하고 있다. 이는 다생의 선근공덕의 습기가 남아서 자신도 모르게 앓는 습관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훈습은 종단이 혼란스럽고 불교계가 위태로웠을 때 종단의 행정에 헌신하였지만,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여겨지면 바로 선방으로 발길을 향하였다. 평생을 선사로서 참선에 전력한 것은 단순한 의지만이 아니라 다검생으로 익혀온 훈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간사에 대한 관심보다 인간본래의 근본문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³⁾

청소년시대에는 일본, 중국 등지를 유순하면서 외국의 문물과 시대사조를 살펴보았다. 당시의 젊은 청년들에게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때였다. 월산스님도 망국의 한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였을 것이다. 특히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출중하며, 대장부격의 뛰어난 상호를 가진 젊은 청년에게 보는 사람마다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사회적 출세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이 사망한 후 무상을 절감하고 1943년 속가와 멀지 않는 석왕사의 양안광스님을 찾아뵙고 그의 소개로 치악산 상원사의 전금초스님을 친견한 후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망월사로 갈 것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1944년 망월사로 가서 춘성스님의 안내로 금오스님을 만나 은사로 모시고 사미계를 받았다.

월산스님이 본격적으로 참선 수행에 들어간 것은 1945년 만공스님을 찾아 수덕사 정혜사로 가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만공스님과의 첫 만남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마치 사자같이 생긴 모습이라고 회고하고 있다.⁴⁾ 만공스님과의 첫 대면에서 대화는 다음과 같았다.

3) 月山門徒會 편, 「연보」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369.

4) 최석환 인터뷰, 「참선만이 살길이다」, 『불교춘추』 3호, 불교춘추사, 1996, 5, p.17.

“아 자네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중이 되었는가?”

갑작스럽게 하는 말이라 나도 대답이 잘 안 나왔다. 그래서 엉겁결에 이렇게 말했다.

“스님은 왜 중이 되었소?”

그러자 만공스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 사람아, 내가 중인가?”

그리고는 저쪽으로 갔다.⁵⁾

만공스님과 첫 대면에서 자신의 대답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언급은 없다. 그 후로 만공스님 문하에서 한철 공양주를 하면서 선원대중을 시봉하였고, 여기서 만공스님으로부터 처음으로 ‘그대는 왜 중이 되었는가’, ‘이뭇고’ 화두를 받아 평생토록 이 화두를 놓지 않았다고 한다.⁶⁾ 이때 만공스님을 모시고 ‘이뭇고’ 화두를 받아 공양주 한철을 한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다.⁷⁾ 그 뒤 수덕사를 떠나서 금오스님의 수행처였던 전남 보길도 남은사⁸⁾에서 비룡스님과 함께 고구마와 보리쌀을 탁발하여 허기를 달래면서 피나는 용맹정진하였다고 전한다. 스님은 남은사 수행이후 속리산 범주사, 태백산 각화사, 오대산 월정사 등지를 다니면서 운수행각을 하였고, 때로는 금오스님을 모시고 다니기도 하였으며, 전강스님과도 몇 해를 같이 지내기도 하였다. 특히 당대의 선지식인 만공, 금봉, 금오, 전강스님을 모시고 3년간 운수행각을 한 것이 수행에 큰 힘이 됨을 깨달았다.⁹⁾

5) 月山門徒會 편, 「서산에 해가 지면 동쪽에 달이 뜬다」,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306.

6) 최석환 인터뷰, 「참선만이 살길이다」, 『불교춘추』 3호, 불교춘추사, 1996, 5, p.17. ; 月山門徒會, 「연보」,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369.

7) 최석환, 「덕숭산 선맥을 이어온 큰스승 月山 선사」, 『선문화』 4월호, 선문화사, 2009, 4, p.54.

8) 앞의 책, 「연보」,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370에서는 ‘남문사’라고 하지만, 이는 ‘남은사(南閭寺)’의 오기임을 밝혀둔다.

9) 앞의 책, 「연보」,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369.

2. 금오스님과 의 문답

월산스님은 1945년부터 1947년까지 3년간 당대의 선지식들을 모시고 운수행각의 수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1946년에서 1947년경으로 추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1948년경에 봉암사결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자는 1946년경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때 수행에 큰 계기를 준 것은 금오스님을 모시고 완도의 여름 바닷가에서 있었던 법담이었다고 한다.

마침 여름이라 바닷가에 앉아 은사스님과 바람을 쐬고 있는데 갑자기 스님이 돌멩이 하나를 집어 보이시며 말씀했다.

“일러 보아라. 이 돌멩이가 과연 마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갑자기 묻는 말에 나는 대답을 못했다.

스님은 돌멩이를 바다에 던지고 거듭 물으셨다.

이 번에도 대답을 못하자 역시 스님은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세 번째로 물으셨다.

다시 대답이 없자 스님은 이렇게 타이르셨다.

“선지를 넓히려면 오직 화두를 참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¹⁰⁾

월산스님은 불국선원에서 법문을 하면서 금오스님과 있었던 법담을 이야기 하였다. 금오스님은 여름 바닷가의 바람을 쐬는 피서지에서 조차도 제자의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시험을 한 것이다. 갑자기 돌멩이를 들어 ‘이것이 마음 안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 일러보라’고 거듭 세 번에 걸쳐서 다그쳤다. 월산스님은 그냥 여름 바닷바람이 좋아서 화두를 놓고 있는 사이에 기습을 당한 것이다. 선지식이란 이런 것이다.

10) 위의 책, 「서산에 해가 지면 동쪽에 달이 뜬다」,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306.

어디서든지 관계없이 허를 찌른다. 한시도 쉬지 않고 화두에 전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다른데 정신을 팔고 있는지 틈을 주지 않는다. 세 번째 질문에도 답을 못하자 ‘화두참구에 게으르지 말라’는 짧은 한마디로 제자가 평생을 화두에 전념하게 한 것이다. 이때의 심정에 대해 월산스님은 조금도 숨김없이 범상에서 밝히고 있다.

그날 나는 참으로 부끄러웠다. 중노릇을 하고 참선을 한다면서 돌맹이가 마음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도 모르다니 얼마나 건성건성 헛살아온 것인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로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화두를 참구하는데 매달렸다.11)

이 범문을 할 때 월산스님은 종단의 큰 어른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선지식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을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좌 혹은 손상좌나 다름없는 후배들 앞에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말하면서 후진들의 정진을 독려하고 있다.

논자는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월산스님의 자취 중 가장 감명을 받은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건성건성 공부하는 척했던 것에 은사인 금오스님에게 여름 해변가의 휴양지에서 조금 방심하는 사이 들키고 만 것이다. 그 때의 부끄러움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자신의 갈 길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금오스님의 ‘돌맹이 화두’ 이뵈고에 생사를 걸고 매달리게 된다. 그래서 금오스님의 입적을 맞이하여 임종 직전에 그 해답을 풀어 답함으로써 금오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경허, 만공, 보월, 금오로 이어져온 덕숭문중의 한국선맥을 계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돌맹이 화두’는 중국의 靑原行思, 玄沙師備(835~908), 羅漢桂琛(867~928)으로 전해진 법을 이었으며, 法眼宗의 조사인 法眼文益(885

11) 위의 책, p.307.

~958)의 문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작별을 고하자, 지장계침이 (문익을) 배웅하려는 차에 물었다.

상좌는 평소에 삼계유심 만법유식을 설명하였지. 그리고는 마당에 있는 돌맹이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자, 말해 보라. 저 돌맹이가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법안이 말했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장이 물었다.

“행각을 하는 사람이 어찌서 돌맹이를 마음에 담아가지고 다닌단 말인가.”

법안이 당황하여 답변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좌포를 펴고(걸망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걸택해줄 것을 추구했다. (그곳에 머물며 공부한 지) 한 달 쯤 가까이 되던 어느 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며 (유식의) 도리를 설명해드렸다. 그러자 지장계침이 말했다.

“불법이란 그렇지 않다.”

법안이 말했다.

“저는 말이 다하고 이치가 단절되었습니다.”

지장이 말했다.

“만약 불법을 논하자면 일체가 본래 성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법안이 언하에 대오하였다.¹²⁾

금오스님이 월산스님에게 준 ‘돌맹이 화두’는 이미 나한계침과 법안문익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법안문익은 『肇論』에 통달했고, 유식, 천태, 정토를 두루 섭렵하였다. 그런데 나한계침의 ‘저 돌맹이가 너의 마음 안에

12) 『金陵清涼院文益禪師語錄』(大正藏47, 588상-중), “便起去。雪霽辭去。地藏門送之。問云。上座尋常說三界唯心。萬法唯識。乃指庭下片石云。且道。此石在心內。在心外。師云。在心內。地藏云。行脚人。著甚麼來由安片石在心頭。師窘無以對。即放包依席下。求決擇。近一月餘。日呈見解說道理。地藏語之云。佛法不恁麼。師云。某甲詞窮理絕也。地藏云。若論佛法。一切見成。師於言下大悟”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마음 안에 있다'고 하자, 계침은 '길 떠나는 나그네가 무엇 때문에 무거운 돌맹이를 안고 가려고 하는가'라고 한마디 하였다. 그러자 범안문익은 그 자리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한 달 동안 용맹정진한 결과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아마도 금오스님은 나한계침과 범안문익의 고사를 알고서 월산스님에게 '돌맹이 화두'를 주면서 '이것이 너의 마음 안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라고 물었는지도 모른다.

월산스님은 화두에 전념하라는 금오스님으로부터 경책을 받은 후 목숨을 건 수행을 하고자 발원하였고, 이러한 수행처를 물색하고 있었다. 마침 1947년 10월 경 문경 봉암사에서 청담스님과 성철스님, 자운스님이 중심이 되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는 구호아래 「봉암사결사」를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월산스님은 봉암사로 발길을 옮겼다. 성철스님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의 동참자를 알 수 있다.

그 뒤로 향곡(香谷), 월산(月山), 종수(宗秀), 젊은 사람으로는 도우(道雨), 보경(寶鏡), 법전(法傳), 성수(性壽), 혜암(慧菴), 종회의장 하던 의현(義玄)이는 그때 나이 열서너댓살 되었을까? 그렇게 해서 그 멤버가 한 20명 되었습니다.¹³⁾

봉암사결사의 핵심주체자는 이성철, 이우봉, 신보문, 김자운 등 4명이었지만, 뒤에 동참자는 약 20여명이 되었다고 한다. 성철스님의 회고에 의하면, 월산스님은 봉암사결사의 창립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결사가 시작되고 얼마 뒤 바로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3년간의 운수행각도중 금오스님으로부터 '돌맹이 화두' 이뒀고로 용맹정진의 결심이 확고할 즈음 봉암사결사 소식을 접하고 바로 발길을 봉암사로 옮긴 것이다. 봉암

13) 김광식, 「봉암사결사의 제조법」,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불교』, 불학연구소, 2008, p.29.

「1947년 봉암사결사」, 『수다라』 10집 p.115, 재인용.

사결사에 대한 해암스님의 회고에 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방부를 못 들어서 야단이었지요. 아무나 방부를 받지 않았거든요. 처음 해인사에서 장경을 싣고 가서 얼마 동안은 한 7,8명밖에 안 살았어요. 점점 그 수가 늘어나 20명이 30명 되고, 나중에는 많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청안스님, 보문스님, 우봉스님, 일도스님, 자운스님 등이 계셨지요. 보문스님도 돌아가셨고, 일도스님도 돌아가셨는데, 모두 훌륭한 스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향곡스님, 청담스님 등이 들어오셨습니다. 뒤에 월산스님, 성수스님, 법전스님 등이 오셨지요.¹⁴⁾

해암스님 회고는 좀 더 구체적이다. 처음에는 성철, 우봉, 보문, 자운, 청안, 일도스님 등이 있었고, 2차에 향곡, 청담스님 등이 합류하였다. 3차에 성수, 법전, 월산스님이 동참하여 20여명 이상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30여명이 함께 수행하였고, 비구니스님들은 봉암사 인근의 백련암에서 결사에 동참하였다고 한다.¹⁵⁾

그러면서 계속 머물면서 수행한 사람도 있었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월산스님이 봉암사결사에 3차 모임에 합류하여 정진하면서 이 결사동지들이 후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재건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월산스님이 봉암사결사에 동참한 것은 3차이므로 아마도 1948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봉암사결사는 1950년 3월에 막을 내리게 된다. 인근에서 밤마다 무장공비가 출현하여 더 이상 공동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고성 옥천사의 말사인 문수암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¹⁶⁾

3. 토굴 수행과 청빈

14) 위의 논문, p.30.

『해암스님을 찾아서』, 『고경』 2호, 불기 2540년 여름호, p.19 재인용.

15) 위의 논문, p.31.

16) 위의 논문, p.19-20.

따라서 월산스님도 봉암사를 떠나 용맹정진 할 곳을 찾게 된다. 그러나 1950년 6.25일 전쟁이 일어나므로 남방으로 갔다. 1950년 동래 현재 금강공원 안에 있는 금정사 금정선원에서 하안거를 하면서 선원장으로 있었다. 당시 성철스님, 자운스님 등도 같이 수행하였으며, 이때 종원스님이 상좌로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¹⁷⁾ 그리고 동안거도 금정사 금정선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¹⁸⁾ 1951년에는 선암사 주지 소임을 보았으며,¹⁹⁾ 내원사에서 수도 수행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다들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지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 부산 선암사에서 오래 지냈지요. 육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내원사에도 있었고, ...²⁰⁾

월산스님은 1950년 6.25전쟁 때에는 주로 부산 지역에서 수행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자 1953년경에 청도 적천사 도솔암 토굴에서 홀로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한 분명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종원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1953년으로 기억하고 있다.²¹⁾

월산스님의 수행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정진하였으며, 평생을 가난한

17)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265.

18) 앞의 책, 『연보』,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화보면에서는 ‘초심납자 시절 범어사 금정선원에서 동안거를 해제하시고(1950)’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인 것 같다. 이미 이때 월산스님은 초납자가 아니라 중견납자에 해당되고, 다음으로 범어사는 동산스님이 조실로 있을 때인 1950년 이전부터 金井山 梵魚寺 金魚禪院이라고 하였으며, 금정사는 金井禪院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19)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p.265-267.

20) 월간 『海印』 31호(1984. 9) 「불국선원을 찾아서: 엄화실의 미소 -월산」

21) 김광식, 「월산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 『월산대종사의 생애와 삶』 2019년 대각사상연구원 학술세미나 자료집 p.52, 재인용. 김광식의 발표문 중 주32)에서 종원스님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김광식은 ‘월산스님의 만상좌인 종원스님은 1953년 무렵에 적천사 도솔암으로 은사인 월산스님을 찾아 갔다’고 필자에게 회고 했다.(2019년 4월 15일 대구 수성구 정토사에서)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춘 곳이 이곳으로 보인다. 이때의 수행이 10여년간 구도자로서 방향을 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²²⁾ 당시의 수행에 대해 『선문화』에 게재된 종후스님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청도 토굴생활은 소림굴의 달마대사가 면벽하였던 그때의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 무렵의 스님은 토굴의 식량이 떨어지면 홀로 대구시내로 내려가서 탁발을 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월산큰스님은 매번 이집 저집 축복의 송경을 하여 탁발한 시주물을 다리 밑의 거지들을 찾아 몽땅 쏟아 주곤했다.²³⁾

월산스님은 완도의 여름 바닷가에서 금오스님으로부터 받은 ‘돌멩이 화두’ 이뒤틀고를 해결하기 위해 운수행각도 하고, 봉암사 결사에도 참여하였지만,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다시 철저히 ‘바다에 던진 돌멩이가 마음 안에 있는지, 마음 밖에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이뒤틀고’ 화두에 몰입하기 위하여 모든 허장성세의 번거로움을 떨쳐버리고 토굴로 들어갔다. 토굴생활은 철저한 가난과 허기 속에서 오직 화두와의 씨름이었다. 이때 가난을 경험한 것을 불국선원의 법문에서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禪門拈頌』의 「香巖赤貧」 화두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다.
올 해의 가난이 참으로 가난이다.
지난해는 송곳 꽃을 땅이 없었으나
올 해의 가난은 송곳마저 없구나.

라는 계송을 仰山慧寂에게 보이니 사형은 如來禪은 알았다고 하겠지

22) 앞의 책, 「연보」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370.

23) 최석환, 「덕숭산 선맥 이어온 큰스승 月山 선사」 『선문화』 2009년 4월호, 선문화사, 2009, p.55.

만, 祖師禪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에 香嚴智閑은 다시 계송을 지으니 사형이 조사선을 알게 되니 반갑소.²⁴⁾

일화를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월산스님은 ‘양산의 경계는 이와 같거니와 내가 오늘 대중들에게 이르고자 하는 것은 조사선의 경지는 그만두고라도 납자라면 우선 여래선의 경지라도 분명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하였다.²⁵⁾ 향엄의 조사선의 계송도 소개하지만, 앞의 여래선의 경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의 수행자들이 조사선은 고사하고, 여래선의 경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행자의 청빈을 강조하고, 떠난 뒤의 뒷모습, 죽은 뒤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누누이 설하고 있다.

여기서 가난에 대한 설법은 정도 토굴에서 몸소 경험한 것을 간절히 당부하고 있다.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고자 하는 것은 수행자는 항상 뒷모습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은 무상해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 어느 날 나나 그대들이 죽고 나면 누군가가 뒤를 정리할 것이다. 그때 만약 수행자의 분수에 맞지 않은 소유물이 나오거나 뒷말이 무성하다면 이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²⁶⁾

이 구절은 마치 유언과도 같이 간절히 들린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고 난 뒤에 후인들이 뒷짐을 정리할 때 수행자답지 않는 물건이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

24) 慧諶 述, 『禪門拈頌集』 권15 (고려장46, 247).

慧諶, 覺雲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 권15 (한불전5, 463하), “【古則】 (五九八) 香嚴頌云 去年貧未是貧 今年貧始是貧 去年無卓錫之地 今年錫也無 因仰山云 如來禪卽許師兄會 祖師禪未夢見在 師又呈偈云 我有一機 瞬目示伊 若人不會 別喚沙彌 仰云且喜師兄 會祖師禪也”

25) 앞의 책, 「수행자의 뒷모습」,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275.

26) 위의 책, p.277.

의 평소의 인품일 수도 있다. 이는 살아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행자의 뒷모습은 저 향엄화상의 계송처럼 가난해야 한다. 수행자가 가진 것이 많아서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것이 많으면 이는 부처님과 조사님 뵙기에 부끄러운 일이다.”고 하면서 빈도(貧道)라고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송을 읊고 당부하시기를,

몸이 가난한 것은 가난이 아니다
정신의 가난이 정말 가난한 것이다
몸이 가난해도 능히 도를 지킨다면
그를 가리켜 가난한 도인이라 한다.

그대들은 이 절에서 저 절로 떠나간 뒤에, 이승에서 저승으로 떠나간 뒤 어떤 뒷모습을 남기는 사문이 되려 하는가, ‘가난한 도인’이라는 말을 듣도록 하라. 운수납자(雲水衲子)란 떨어진 옷 입고 바랑하나에 지팡이 하나로 구름처럼 물처럼 도를 찾아다닌대서 붙인 이름이다. 이 얼마나 뒷모습이 깨끗한 이름인가. 내가 오늘 진심을 다해서 한 이 말을 듣는다면 그대들은 가난한 도인이 되리라.²⁷⁾

라고 하였다. 여기서 몸의 가난이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한다. 수행자는 물질적인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정신적인 가난이야말로 참으로 가난한 것이다. 수행자가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용맹정진 수행에 물러서지 않는다면, 참된 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대중들에게 ‘가난한 도인’ ‘운수납자’라는 소리를 듣도록 하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한 이 말을 명심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논자는 이 법문은 수행자들이나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다고 생각한다. 불국사는 어느 사찰보다 여유가 있는 본사이다. 자신을 위한 토굴도 만들 수 있고, 사설사암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석굴암의 석굴과 불국선원에서만 주석하면서 용맹정진을 계속하

27) 위의 책, p.279, “身貧未是貧 神貧始是貧 身貧能守道 名爲貧道人”

였다. 월산스님의 수행생활은 가난이 몸에 밴 수행이었다. 오늘날의 수행자들에게 조사관을 타파하여 확철대오 한 도인은 못되더라도 가난을 실천한 향엄의 여래선이라도 행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난한 수행생활은 청도 적천사 도솔암 토굴의 가난 속에서 용맹정진한 경험으로부터 체험한 것이라고 보인다. 적천사 토굴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으니,

범부가 곧 부처이며
 번뇌가 곧 보리이니
 앞생각이 미하면 범부였으나
 뒷생각에 깨치면 곧 부처이며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할 때는 곧 번뇌였으나
 뒷생각이 경계를 여의면 곧 보리라.²⁸⁾

이 계송은 「月山大宗師碑文」에 있다. 즉 범부와 부처가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닌 경계이다. 前念과 後念에 따라 범부가 되고 부처가 되며, 번뇌와 보리의 경계는 한 생각과 집착에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청도 적천사 도솔암 토굴에서 용맹정진으로 득력을 한 것이다.

4. 오도송과 덕숭선맥의 전승

월산스님은 청도 적천사 도솔암 토굴에서 큰 힘을 얻었으며, 평생 동안 당시의 수행을 가장 소중한 기간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종단의 상황이 오래 머물도록 두지 않았다. 1954년부터 전개된 불교정화운동에서 은사인 금오스님이 핵심적인 주역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²⁹⁾ 월산스님의 토굴 정진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1954년 6월 21일 금오스님이 「불

28) 智冠編 「慶州 佛國寺 聖林堂 月山大禪師碑文」,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0, p.1339.
 29) 김광식,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57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1.

교정화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 추대 되면서 월산스님은 자연히 금오스님을 모시고 정화에 참여하게 되었다.³⁰⁾ 1954년 8월 24~25일 선학원에서 전국수좌대표자 대회가 개최되어 금오스님은 종헌제정위원 및 정화추진대책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월산스님은 금오스님을 돕는 실무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월산스님은 대회 참가 승려의 자격을 심사하는 5인 전형위원, 종헌의 제헌위원을 선출하는 7인 전형위원, 추진위원의 7인 전형위원, 대책위원의 7인 전형위원 등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1954년 9월 28~30일 선학원에서 ‘전국비구승니대회’를 개최하였다.³¹⁾

1961년부터 동화사 주지, 법주사 주지, 1963년 신흥사 주지, 월정사, 상원사와 종단의 소임을 맡기도 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몸에 밴 가난은 철저한 신념으로 실천하였다.

1968년 금오스님의 입적을 앞두고 완도의 여름 밤 ‘돌멩이 화두’ 이뿃고에 대한 답을 하게 된다.

그 뒤 스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법주사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오른손을 들었는데 그때서야 나서서 대답을 할 수 있었다. 그 때 얘기는 문도들이 다 잘 아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³²⁾

1946년경에 금오스님으로부터 받은 ‘돌멩이 화두’ 이뿃고의 답은 1968년 은사이신 금오스님의 입적을 앞두고 해결하였다. 금오스님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시험하였다. 열반을 앞두고 오른손을 들어 보이니 아무도 답하

30) 『한국근현대 불교자료전집』 권68, 「비구승단 발족약사」, p.421.

31) 김광식, 「전국비구승대표자 대회의 시말」,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p.446.

김광식, 「월산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 『월산대종사의 생애와 삶』 2019년 대각사상연구원 학술세미나 자료집, pp.56-57, 재인용.

32) 앞의 책, 「서산에 해가 지면 동쪽에 달이 뜬다」,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307.

지 못하였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 월산스님께서 생전에 『불교춘추』에 직접 자세히 밝힌 기사가 있다.

그때가 1968년 금오스님은 입적 직전 문도제자들을 범주사 조실방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때 월산(月山), 탄성(呑星), 월성(月性), 월만(月滿), 월고(月古) 등의 문도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묵묵히 계시다가 대중을 돌아보시며 오른손 손바닥을 보이시니 월산스님이 일어나 은사스님께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忽覺本來事	홀연히 본래사를 깨달으니
佛祖在何處	부처와 조사가 어디에 있느냐
肚裏藏乾坤	배속에 건곤을 간직하고
轉身獅子吼	몸을 돌려 사자후를 한다.
不立	세우지 않고
不捨	버리지 않으며
不休	쉬지 않는다.

월산스님이 올린 글을 보시더니 금오스님은 ‘대중을 돌아보며 모든 일들을 월산에게 부촉하노라’ 하셨다. 이에 월산스님은 거듭 금오스님을 향해 여쭙시길,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위하여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이에 금오스님은, ‘무념을 종으로 하는 이 일을 너(월산)에게 부촉한다(無念爲宗此事付汝)’하고 아무 말 없이 벽에 걸린 불자(拂子)를 가르키면서 월산스님을 돌아보았다.³³⁾

금오스님은 입적 직전까지 경허, 만공, 보월스님으로부터 이어온 정법안장열반묘심(正法眼藏涅槃妙心)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정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이게 한 후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경계를 보인 것이다. 이때 모두가 묵묵부답이었을 때 월산스님이 한 계송을 지

33) 최석환 인터뷰, 「참선만이 살길이다」 『불교춘추』 3호, 불교춘추사, 1996, 5, p.18. 앞의 책, 「연보」,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370.

어 받치므로 인가를 받고 불자를 전수 받으면서 문중의 수장과 정법안장을 부촉 받았다. 이 순간은 한국의 전통적인 선맥 중 하나인 덕숭문중의 경허맥을 부촉 받은 것이다. 금오스님은 자신의 불자(拂子)를 월산스님에게 전수한 후 1968년 10월 8일(음력 8월 17일) 오후 7시 15분에 안심하고 입적에 들었다.

금오스님의 입적에 앞서 월산스님의 오도송은 이미 1946년경 완도의 여름 바닷가에서 금오스님이 준 ‘돌맹이 화두’ 이렇고의 결과물이다. 이때 해결하지 못한 화두를 가지고 22년 동안 목숨을 건 용맹정진으로 해결한 것이다. 22년 전에 준 화두를 해결하였는지 못했는지를 열반을 앞두고 재점검한 스승도 대단하지만, 22년 동안 이 화두를 들고 오로지 씨름하여 스승의 임종직전에 답을 낸 제자 월산스님도 줄탁동시(倅啄同時)에 답을 낸 것도 대단한 일이다.

22년 만에 해결한 계송은 완도 여름 바닷가에서 금오스님이 돌맹이를 들어 “일러 보아라. 이 돌맹이가 과연 마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면서 세 번이나 돌맹이를 바다에 던지면서 다그쳤지만 대답 하지 못하니 “선지를 넓히려면 오직 화두를 참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만행과 봉암사결사와 적천사 토굴에서 화두와 씨름하였다. 그 결과 스승의 임종을 앞두고 스승이 다시 물으니 오도송으로 답하였다.

이 오도송을 분석해 보면 22년 전에 답하지 못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깨닫고 보니 부처와 조사뿐만 아니라 건곤이 모두 뱃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돌맹이가 너의 마음 안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는 답이다. 모두가 내 뱃속에 있으니 그 이상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러면서 ‘세우지도, 버리지도, 쉬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즉 내가 깨달았으나 내세울 것도, 버릴 것도, 화두를 놓고 정진을 잠시도 쉬지 않겠다는 월산스님의 평소 중도적인 뜻임을 논자의 우둔한 견해로 사족을 달고자 한다. 이러한 예는 남악회양(南嶽懷讓)이 육조혜능을 찾아가

서 범거랑 후 15년을 시봉하면서 확철대오를 한 것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³⁴⁾

1968년 9월 7일 총무원장에 취임하여 종무행정을 보기도 하였지만, 마음은 항상 선방에 있었고 화두를 놓지 않았다. 종단이 안정되자 총무원장직을 내려놓고 수덕사 전월사 토굴로 들어가 화두와 씨름하였다. 그러나 1973년 3월에는 불국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오면서 석굴암을 토굴로 삼아 정진에 박차를 가했다. 석굴암에서의 수행은 청도 적천사 토굴의 수행과 다름이 없었다. 1974년 6월 23일 제11교구 불국사 주지로 임명되어 관광사찰에 머물러 있던 불국사를 수행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불국사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기와 한 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도량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불국선원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의 요로를 설득하여 불국선원을 개원하였으니 참선수행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입적에 들 때까지 석굴암에서 참선과 불국선원을 떠나지 않고 남자들과 함께 정진하였으며, 조실로서 남자들을 지도하고 결제, 반결제, 해제 법문을 하였다.

이상으로 월산스님의 수행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1945년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으로부터 ‘이뵈고’ 화두를 받았다. 두 번째는 3년간 만행수행하던 도중 1946년 경 금오스님으로부터 완도 바닷가에서 ‘돌맹이 화두’ 이뵈고를 재점점 받으면서 용맹정진의 결심을 굳히게 된다. 세 번째는 1948년 경 봉암사결사에 참석하여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공주규약(共住規約)대로 수행하였다. 네 번째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1953년 청도 적천사 도솔암 토굴에서 가난과 허기로 철저히 홀로 수행

34) 宗寶 編, 『六祖大師法寶壇經』(T48, 357b), “懷讓禪師。金州杜氏子也。初謁嵩山安國師。安發之曹溪參扣。讓至禮拜。師曰。甚處來。曰嵩山。師曰。什麼物恁麼來。曰說似一物即不中。師曰。還可修證否。曰修證即不無。污染即不得。師曰。只此不污染。諸佛之所護念。汝既如是。吾亦如是。西天般若多羅識。汝足下出一馬駒。踏殺天下人。應在汝心。不須速說一本無西天以下二十七字讓豁然契會。遂執侍左右一十五載”

정진에 전념하였다. 여기서 큰 힘을 얻고 오로지 ‘이뵈고’ 화두에만 몰두하였다. 다섯 번째는 1968년 10월 금오스님의 입적을 앞두고 오도송을 읊어 경허스님으로부터 전해져온 덕숭문중의 선맥을 계승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 1974년 불국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석굴암에서 토굴수행과 불국선원을 개창하여 후학을 지도하였다.

Ⅲ. 월산스님의 참구화두

1. ‘이뵈고’ 화두

월산스님의 참구화두에 대해서는 이미 수행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1945년 수덕사에서 금오스님으로부터 받은 ‘이뵈고’ 화두이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아 자네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중이 되었는가?”이다. 왜 중이 되었나?. 왜 출가했는가? 무엇 때문에 출가했는가? 출가한 그놈이 무엇인가? ‘이뵈고’이다. 특히 1946년 경 완도의 바닷가에서 금오스님으로부터 ‘이 돌맹이는 마음 안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라고 세 번에 걸쳐 다그치면서 묻는데 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를 논자는 ‘돌맹이 화두’ ‘이뵈고’라고 하였다. 이 ‘돌맹이 화두’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한계침과 법안문익간에 거래되어 검정된 화두이다. 법안문인은 나한계침으로부터 ‘이 돌맹이가 너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고 물었고 법안문익은 이 질문으로 용맹정진한 결과 깨달음을 얻었다. 월산스님은 금오스님이 질문한 이 화두를 가지고 22년 동안 오매불망 화두에 전념하다가 마지막 스승인 금오스님의 임종직전에 답을 내어놓고 인가를 받았다. 결제 날 법문에서,

(노사께서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높이 들고 대중에게 물으셨다.)
是甚麼 이것이 무엇이뇨?

이것을 주장자라 하면 이(理)에 맞지 않고 주장자가 아니라 하면 사(事)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일러 무엇고?

不是物 不是心 不是佛 不是祖 不是神 不是鬼 不是衆生이로다.

總是境界如何

물건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요, 조사도 아니다. 귀신도 아니요, 도깨비도 아니다. 또한 중생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어떤 경계인고?

大似寇賊破家니라.

도적놈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이 망하는 것과 같도다.³⁵⁾

월산스님은 상당법문에서 주장자를 즐거이 사용하였다. 물론 우리나라 선사들이 법상에서 주장자를 사용하는 것은 다반사이지만, 월산스님은 자유자재하게 주장자를 사용하였다. 금오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은 불자(拂子)임에도 불구하고 불자를 내세운 흔적은 보이지 않고 주장자를 활용하였고, 사진에서도 주장자를 잡고 있는 장면이 유난히 많은 편이다. 어떻게 보면 월산스님의 법문은 주장자로 시작하여 주장자로 끝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어도 불국선원의 결계법문인데 주장자를 들어 보이시면서 ‘이것이 무엇이나’, ‘이뻐고’ ‘주장자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하면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무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일러 보아라.’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마치 금오스님이 완도의 여름 바닷가에서 돌맹이를 들어 보이시면서 ‘이것이 마음 안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 일러보아라’고 다그치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것은 물건도, 마음도 부처도 조사도 귀신도 도깨비도, 중생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어떠한 경계인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도적놈과 같으니 집안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집안이

35) 앞의 책, 「도적이 들면 집안이 망한다」,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188.

망한다. 이 주장자를 일러서 무엇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일러보아라. 이 경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도적과도 같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고?

더욱 노파심절에서 관계지한(灌溪志閑 : ?~895)이 末山の 비구니 了然에게 선문답에서 당하여 3년간 원두(園頭)를 살면서 절치부심(切齒腐心), 와신상담(臥薪嘗膽) 하면서 ‘이뭇고’ 화두로 용맹정진하여 3년 만에 깨달음을 얻어 임제선사 문하로 가서 인가를 받았다는 『禪門拈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³⁶⁾ 그리고 다시 대중들에게 묻기를,

(노사께서 다시 주장자를 들으셨다.)

이것이 무엇이고?

무(無)도 아니요

유(有)도 아니요

부처(佛) 아니요

중생(衆生)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해제 날에는 한 마디 이르라.³⁷⁾

앞에서 내어준 화두를 다시 챙기고 있다. 전자는 물건도, 마음도, 부처도, 조사도, 귀신도, 도깨비도, 중생도 아니라고 하였지만, 후자는 무

36) 慧諶 述, 『禪門拈頌集』 권19(고려장46, 310하)

慧諶, 覺雲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 권19 (한불전5, 573하), “【古則】(七六五) 灌溪垂語云 我在臨濟處得一杓 我在末山處 得一杓 又云十方無壁落 四面亦無門 露髀赤洒洒 沒可把 天童覺拈 灌溪恁麼說話 且道 是臨濟處得底 末山處得底 雖然一箭雙鷗 奈有時走殺 有時坐殺 且作麼生得恰好去 捏聚放開都在我 拈來拋去更由誰 [一杓] 臨濟處得一杓者 我見臨濟無言語 是一杓耶 此後疑有一段公案 末山處得一杓者 不露頂 非男女相尊貴家風也 十方無壁落云云者 都來是一箇虛空 把捉不得也 然則捏聚放開都在我 拈來拋去更由誰 天童 有時走殺者 臨濟處得地也 坐殺者 末山處得地也 捏聚云云者 走殺坐殺 又有什麼”

37) 앞의 책, 「도적이 들면 집안이 망한다」,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190.

도, 유도, 부처도, 중생도 아니라고 했다. 혹시 유와 무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간절히 일러주고 있다. 즉 부처도, 조사도, 유도, 무도, 중생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하는 화두이다.

월산스님은 자취를 많이 남기지 않아서 논문의 전개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月山禪師法語集』의 각종 법어를 보면서 반드시 어록에 근거를 들어서 설법한 모습을 발견하고 조사어록을 많이 편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조사어록에 근거를 들어 예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도 철저한 고증과 정확한 인명 예화를 제시하고 있음에 놀라웠다. 다시 ‘이뻐고’에 대한 화두는,

(노사께서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대중에게 세 번 물으셨다.)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대중이 대답이 없자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송을 읊으셨다.)

三界唯一心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니

心外無別法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心佛及衆生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是三無差別 아무런 차별이 없다.

마음과 중생과 부처와 차별이 없는 사람, 여기에 딱 계합되어 둘이 아닌 경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³⁸⁾

여기서도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하여 ‘이뻐고’ 화두를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도 마음도, 부처도, 중생도 아니라고 하였지만, 여기서는 마음과 중생과 부처와 차별 없는 사람을 설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하였다. 즉 앞에서는 부정으로 전개하였지만, 여기서는 긍정으로 전개하면서

38) 앞의 책, 「쉬운 일과 어려운 일」,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203.

‘이뿔고’ 화두를 당부하고 있다. 논자는 얼마 전에 종우스님으로부터 월산스님께서 ‘이뿔고’ 화두를 챙기는 모습에 대해 전해들은 일이 있었다. 종우스님은 현재 불국사 주지이고, 월산스님을 모시고 불국선원이 개원 될 때부터 지금까지 선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선원장을 맡아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월산스님을 모시고 불국선원에서 수행하면서 가끔 시내에 목욕을 갈 때 차에서 내리 시면서 이-, 이-, 이-, 이뿔고라고 하셨습니다. 이뿔고를 다 하지 않더라도 이-, 이-, 이- 를 반복하시면서 ‘이뿔고’를 챙겼습니다.³⁹⁾

종우스님은 월산스님을 모시고 불국선원이 개원되면서부터 선원에서만 수행했던 상좌이다. 그는 월산스님께서 ‘이뿔고’ 화두에 철저하였음을 직접 옆에서 보았다고 한다. 평소는 말할 것도 없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차에서 내리면서까지 이-, 이-, 이- 를 되풀이 하였다고 한다. 월산스님은 모든 화두로 해결되지 않고 미진할 때도 ‘이뿔고’를 하라고 한다.

여기에 이르면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이니,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니 혹은 간시궤(乾屎橛), 마삼근(麻三斤)이니 하는 화두가 일시에 환해진 다. 만약 이 때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또 다시 이 무엇인고?하고 전력의심해야 하느니라.⁴⁰⁾

이 법문은 참선지도 방법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화두가 다 해결된 뒤에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이뿔고’ 화두를 참구

39) 필자는 종우스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경 경주 코모드호텔에서 들었다.

40) 앞의 책, 『參禪學人의 새겨들 法門』,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302.

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자화두나, 정전백수자, 간시궐, 마삼근 화두로도 해결 되지 않는 것은 ‘이뵈고’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상좌의 49재를 맞아 영가법문을 하면서 ‘이뵈고’ 화두를 일러주고 있다.

너 이놈 종명이 영가야! 종명이 영가야! 종명이 영가야!
 영가는 내가 너를 세 번 고성으로 부른 뜻을 알겠느냐?
 영가의 주인공은 지금 어디에 있는고?

아직 성성한가?

성성하다면 한 마디 일러보라.

(한참 양구하다가 주장자를 세 번 울리고 개송을 읊으셨다)

生長喚主人公 일생동안 주인공을 부르며

不受人謾向不同 남의 말 듣지 말라 신신당부했더니

今日惺惺何處去 오늘은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가는고

滿山松柏起悲風 산 속 소나무에는 슬픈 바람만 이누나

내 오늘 이르러 너를 생각하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구나.

너는 12살에 내게 왔다. 어린 나이에 반찬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시봉도 참 잘했다. 1년이 지나 내가 ‘이뵈고?’ 화두를 주니 불과 며칠이 안 돼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⁴¹⁾

이 영가법문은 젊은 상좌의 49재를 맞이하여 스승으로서 참으로 가슴을 저미는 간절함이 배여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끼던 상좌를 보내면서 종명수좌를 부르며 좀 더 다잡아 관리하지 못했음을 자책하고 있다. 12살에 문하로 들어와서 은사스님을 시봉하던 어린사미인 종명에게 13살 때 ‘이뵈고’ 화두를 준 이야기와 며칠되지 않아서 답을 가져왔으나 부족하였다. 그 뒤 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가라고 했고, 세상맛을 보겠다

41) 위의 책, 「살구씨 기름에 입을 대지 말라」,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p.336.

고 해서 허락한 것이 너를 일찍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너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지 일러보아라. 일생동안 주인공을 부르면서 이뿔고를 찾으라’고 했더니 남의 말 듣고 정신 못 차리고 가버렸으니 참으로 슬프다고 하면서 영가를 위하여 여우가 독이 든 살구씨 기름을 먹다가 죽는 것과 같다고 자책하고 있다. 논자는 이 범문을 보면서 월산스님께서 제자를 위하는 무한한 자비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상으로 월산스님의 참구화두는 ‘이뿔고’라고 할 수 있다. 만공스님으로부터 받은 ‘이뿔고’ 화두를 금오스님에게 완도 바닷가에서 방심하는 사이에 급소를 찢린 후 한시도 놓지 않고 씨름하였다. 설사 수행자가 다른 화두로 해결 되었다고 할지라도 미흡함이 있을 때는 오직 ‘이뿔고’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이뿔고’가 화두가 아니라는 주장

그런데 요즘 일부학자들 가운데 ‘是甚麼 이뿔고’가 화두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什麼’의 의미는 다루지 않아도 시비의 논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혹자가 ‘是’에 대하여 지시대명사라고 하면서 ‘什麼’를 동사로 간주 할까하여 스쳐 지나치지 못하고 간단하게 그 의미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 단국대학교 출판 漢韓大辭典

【什麼 심마】에는 무엇, 무슨, 什은 甚으로, 麼는 末로도 쓴다.⁴²⁾로서 표기한 것과 같이 ‘무엇’ ‘어떤’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什麼’는 비슷한 발음의 다른 글자로 구성되어 ‘甚麼’ 혹은 ‘什么’, ‘甚么’로서 현대중국어에서도 의문사로 사용되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是’ 와 함께 ‘是什麼’ 혹은 ‘是甚麼’, ‘是什么’, ‘是甚么’로서 ‘이뿔고’ 화두로 통용되고 있

42) 명준, 「碧巖錄 ‘是什麼’의 用處에 관한 一考」, 『禪學』 52호, 한국선학회, 2019, 재인용, p.89.

다.43)

즉 위 논문의 전체 맥락에서는 ‘是’는 be동사로 사용되어 ‘인고’ ‘인가’라고 하여 지시대명사인 ‘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什麼’ ‘甚麼’는 ‘무엇’으로 해석되어 ‘부정칭의문대명사’이며, ‘是’는 ‘서술격동사’로 보고 있다.4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是’를 ‘이’로 해석해서 지시대명사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甚麼’를 동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뻗고’는 화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화두가 되려면,

이러한 선사들의 단순한 ‘是什麼’ 앞에는 ‘是什麼’라고 한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 ‘是什麼’라고 하였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모든 상황이 화두가 되는 것이지 ‘是什麼’ 자체가 ‘이뻗고’ 화두인 것은 아니다.45)

지관스님의 『伽山佛教大辭林』에서도 아래와 같이 나온다.

“是什麼: ①是箇什麼와 같은 말, ②什麼와 같은 말 箇什麼라고도 한다.

③是什麼物

怎麼來: ~은 무엇인가. ‘시’는 어조사로 ‘이다’ 정도를 뜻하고, ‘시’의 앞에는 주어가 온다. 此箇是什麼, 這箇是什麼 등도 이러한 예이다.

是什麼物怎麼來: ‘어떤 것이 이렇게 왔는가’라는 뜻 什麼는 甚麼로 쓰기도 하고, 怎麼는 與, 伊로도 쓴다. 육조혜능이 남악회양에게 물은 말로서, 화두로 정착하여 후대의 문답에 널리 활용된다.46)

지관스님의 사전에서도 ‘是’를 어조사로 보고 있으며, 전제어가 있어

43) 위의 논문.

44) 위의 논문, p.95.

45) 위의 논문, p.110.

46) 智冠 編, 『伽山佛教大辭林』 권14,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13, pp.1107-1108.

야 하지만, 육조혜능스님과 남악회양의 문답에서 사용된 후 화두로 널리 활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한자사전에서는 ‘是’를 be동사로 사용하지 않고 ①지시하는 말, 여기, 이곳 등으로 지시대명사로 ‘이 시’라고 한다. ②움을 시, 바름을 뜻한다.⁴⁷⁾ 따라서 일반적으로 ‘是’를 ‘이 시’나 혹은 ‘바르다’로 해석하고 있다. ‘이 시’인 경우는 지시대명사로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是’를 be동사로 사용하지 않고 지시대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是’는 ‘이’라고 하여 전제어를 가리킨다.

물론 모든 화두에는 전제어가 있다. 조주의 무자화두(無字話頭)도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이라는 전제어에서 무자(無字)만을 줄여서 단구를 참구한다. 항상 일체중생개유불성(一切衆生皆有佛性)인데 어찌하여 조주선사는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였을까?에서 나온 ‘無’이다. 이와 같이 ‘이렇고’도 전제어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산스님도 만공스님으로부터 ‘이 돌맹이가 너의 마음 안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 일러보라’고 하는데서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이렇고’ 화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물건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요, 조사도 아니다. 귀신도 아니요, 도깨비도 아니다. 또한 중생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어떤 경계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무(無)도 아니요, 유(有)도 아니요, 부처(佛) 아니요, 중생(衆生)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하여 ‘이렇고’의 전제어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 전제어를 생략하고 단순화 시켜 단구로 ‘이렇고’만을 참구한다.

이러한 예는 ‘무자화두’도 다르지 않다. 또한 조주의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화두를 우리나라에서는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한다. 그런데 논자가 조주선사가 주석하면서 이 화두를 설하였던 백림선사(柏林禪寺)에

47) 이상은 감수,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990, p.577.

가보니 잣나무는 없고 측백나무가 무성한 지역이며, 그곳에서는 ‘栢’을 측백나무로 여기고 있었다. 조주선사께서 가리켰던 측백나무가 지금도 있다. 백림선원의 주변에는 측백나무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가 많으므로 우리나라 식으로 ‘栢’자를 잣나무로 해석하였다. 만약 우리나라 선사들이 이 현장에만 직접 가보았다면 ‘뜰 앞의 잣나무’가 아닌 ‘뜰 앞의 측백나무’라고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화두를 너무 문장의 구조나 문법적인 해석으로만 거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뵈고’는 아예 화두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성본스님은 그의 저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최근 한국불교 선원에서는 ‘이뵈고?’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이 많다. 선원에서는 선지식이 ‘이뵈고?’라는 화두를 수행자나 신도들에게 참구하도록 공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뵈고?’라는 화두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주장되어 한국선원의 수행자들이 많이 참구하는 화두가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으나, 간화선의 수행에서 볼 때 ‘이뵈고?’ 화두는 올바른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는 화두라고 할 수가 없다.

간화선의 수행에서 ‘이뵈고?’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한국뿐이며, 또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없었던 것을 근대에 처음 주장되고 있는 화두라는 점이다. 선불교의 역사에서 간화선을 수행하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지에서 ‘이뵈고?’라는 화두를 참구하여 수행한 역사적인 사례는 없다.

‘이뵈고?’를 한자로 ‘是甚麼’라고도 표기하고 있는데, 『오등회원』 제3권 백장회해 장에 다음과 같은 일단이 보인다.

‘백장선사가 어느 날 설법을 마치고 대중이 모두 법당에서 내려가자, 백장선사는 대중을 불렀다. 대중이 고개를 돌리자, 백장선사는 “이것이 무엇인고(是甚麼)?”라고 말했다.’

불법은 말로서만 설법이 끝나지 않는다. 지금 여기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불법의 진실인 것이다. 명칭하게 설법을 듣고 그것으로 불법을 납득했다고 생각한 대중들을 다시 불려서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리는 그대들 각자의 확실한 존재를 자각하라는 친절한 설법이다.

중국 선어록에서 ‘是甚麼’라는 말은 지금 여기저기서 자기 자신이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전개하는 자각의 주체를 철저히 자각하라는 경고의 법문이지 단순한 의심을 참구하는 말은 아니다.⁴⁸⁾

성본스님은 ‘이뻐고?’는 화두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다.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도 없는 ‘이뻐고?’ 화두가 근대 한국에서 주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뻐고?’(공안이 아님)⁴⁹⁾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백장선사의 예를 들면서 “이것이 무엇인고(是甚麼)?”라고 하여 이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불법의 진실인 것이다’고 하면서 ‘각자의 확실한 존재를 자각하라’는 친절한 설법이지 화두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단정하는 것에는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선원에서 실참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원에서 수많은 선지식들이 실참하고 있는 ‘이뻐고’를 화두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다. 선사들이 ‘이뻐고’ 화두를 줄 때는 전제어를 이야기 하면서 주지 단순히 ‘이뻐고’만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논자의 단견으로는 화두란 자기의 불성자리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위의 주장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과거에 있었다고 하면 화두이고, 그곳에 없었으면 화두가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화두라 말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으로도 화두라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인 유행어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화두라는 단어가 이만큼 보편화되고 있다는 논증이다. 명준스님의 주장과 같이 전제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있지만, ‘이뻐고?’가 화두가 아니라는 점에는 쉽

48) 정성본, 『간화선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pp.290-291.

49) 위의 책, p.347.

게 동의하기 어렵다. 현시대에는 얼마든지 새로운 화두가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선어록에 매달려서 거기에 있으면 맞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3. ‘시심마(是甚麼)’ 화두의 전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관스님의 『伽山佛敎大辭林』에서도 ‘육조 혜능이 남악회양에게 물은 말로서, 화두로 정착하여 후대의 문답에 널리 활용된다.’라고 하였다. 백용성스님은 『鮮漢文譯 禪門撮要』 부록 「修心正路」의 ‘1. 시심마是甚麼 화두話頭에 병을 간택揀擇함’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대저大抵 마음을 닦는 도인道人들은 먼저 공부工夫 길을 자세仔細히 간택揀擇하여 바른 길을 얻어야 헛고생(苦相)을 아니하고 탄탄대로坦坦大路로 걸림 없이 갈 것입니다. 수도인修道人들은 자세히 들어 보시오. 사람 사람마다 한 물건이 있으니, 천지와 허공을 온통 집어삼키어 있고, 또 가는 티끌 속에도 작아서 차지 아니하오. 밝기는 백천일월百千日月로 견주어 말할 수 없고, 검기는 칠통漆桶으로도 같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物件이 우리의 옷 입고 밥 먹고 잠자는 데 있지만 이름 지을 수 없고 얼굴(모습)을 그려 낼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마음도 아니요 마음 아님도 아니요, 생각生覺도 아니요 생각 아님도 아니요, 각도 아니요 각 아님도 아니요, 하늘도 아니요, 하늘 아님도 아니요, 귀신鬼神도 아니요 귀신 아님도 아니요, 허공虛空도 아니요, 허공 아님도 아니요, 일물一物도 아니요 일물 아님도 아니니, 그가 종종種種 여러 가지가 아니지만 능히 종종 여러 가지를 건립建立하니, 지극히 밝으며 지극히 신령神靈하며 지극히 비었으며 지극히 크며 지극히 가늘며 지극히 강強하며 지극히 유柔합니다. 이 물건은 명상名相이 없으며 명상이 아님도 없습니다. 이 물건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없고, 마음이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없으며, 언설言說로도 지을 수 없으며, 고요하여 말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없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物件인가? 의심하고 또 다시 의심함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생각生覺하듯이 간절히 하며 답이 알을 품고 앉아 그 따듯함이 끊이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하면 참나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깨칠 것입니다.⁵⁰⁾

용성스님은 시심마(是甚麼) 화두에 대해서 전제어를 자세히 말하면서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함에 끊이지 않고 간절히 하면 ‘참나의 본래면목을 깨칠 것’이라고 한다. ‘시심마’ 화두의 목적은 ‘참나의 본래면목’을 깨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시심마(是甚麼)’ 화두를 육조혜능과 남악회양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한 선각자를 친견親見하고 법법을 물었더니 그 선각자가 이르길, “시심마 화두는 사구死句요, 무자 화두는 활구活句라고 하였소.”

용성이 정색正色하며 대답하여 말하길, “감히 명命을 듣지 못하겠소. 그러한 이치理致가 만무萬無하오. 시심마는 사구도 아니요, 활구도 아닌 줄로 압니다. 시심마 화두가 사구로 확정確定될 것 같으면 남악 회양 성인南嶽懷讓聖人이 숭산崇山으로 터 왔거늘 육조 성사六祖聖師께서 물어 말씀하시길, ‘네가 어떤 곳으로 왔는가?’

회양께서 망지소조罔知所措하여 팔 년八年을 궁구하다가 확철대오하여 육조 성사의 적자嫡子가 되시니, 도道가 천하에 으뜸이었소. 어찌 사구死句에서 깨치시고 활구 句 문중門中에 동량棟樑이 되었겠는가? 시심마가 활구로 확정될 것 같으면 육조 성사께서 어느 날 이르시길, ‘내게 한 물건이 있는데, 천지에 기둥(柱)이 되며 밝기는 해와 달과 같이 밝으며 어둡기는 칠통과 같이 검으며 머리와 꼬리, 얼굴이 없지만 우리들이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에 있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하시니, 하택 신회荷澤神會가 나이 칠 세라 곧 나와서 정례하고 대답하길, ‘삼세각三世覺의 본원本源이요, 신회神會의 각성覺性입니다.’ 육

50) 백상규 편집, 의역, 『鮮漢文譯 禪門撮要』 부록, 「修心正路」(백용성대종사총서2, 135),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조 성사께서, ‘네가 종사관宗師冠을 머리에 쓰고 학자學者를 제접提接 할지라도 지해知解 종사宗師밖에는 되지 못하리라’ 하시니, 어찌 활구 문 중에서 깨치고 사구문 중에서 지해중도가 되겠습니까? 사구이니 활구이니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⁵¹⁾

이 질문의 시작은 한 수행자가 와서 시심마(是甚麼)화두는 사구(死句)이고, 무자(無字)화두는 활구(活句)라고 하던 당시 선가의 일부 선지식들의 지도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전개되었다. 용성스님은 시심마(是甚麼) 화두의 시초를 육조혜능과 하택신회의 문답에서 연원을 찾고 있으며, 또한 남악회양의 문답에서도 사례를 들고 있다.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라고 하였을 때 화택신회의 답에는 지해종사(知解宗師)라고 하였으며, 남악회양과의 문답에서 8년 뒤에 와서 그가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고 답하였다. ‘그 어떤 물건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회양은 8년간 간절히 참구하다가 깨쳐서 혜능의 법을 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용성스님은 시심마(是甚麼)화두의 시작을 육조혜능으로부터 보고 있다.

시심마是甚麼는 일물一物の 소이연所以緣⁵²⁾을 알지 못해서 의심疑心하는 것이니, 이 물건은 천지 허공虛空과 만물萬物을 온통 집어삼키고 있는 물건物件이 있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이 물건은 있는 것으

51) 위의 책, p.138.

52) 위의 책, p.139에서는 소이연(所以緣)이라고 표기하였지만, 이는 번역자의 오류임을 밝혀 둔다. 원자료인 백상규 편집, 의역 『鮮漢文譯 禪門撮要』 부록 「修心正路」(백용성대종사총서10, 231),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에서는 소이연(所以然)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또 진종 백상규 저술 『覺海日輪』 권3 「修心正路」(백용성대종사총서10, 581),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에서도 소이연(所以然)으로 표기하고 있다. 소이연(所以然)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그리된 까닭’을 말한다.(옛센스국어사전, 민중서림, 1980, p.898.) 또한 『淸空圓日』(백용성대종사총서1, 743),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에서도 소이연(所以然)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번역자가 “무슨 존재(所以然)”라고 표기하였으나 이는 ‘그리된 까닭’으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로도 알 수 없고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없으며, 없고 있는 물건도 아니요 참으로 없는 물건도 아니요, 일물—物이 아니라고 할 것도 아니요 다만 일물이라고 할 것도 아니요, 일체 사의思議로 알 것도 아니요 일체 불사의不思議로 알 것도 아니니, 이것이 무슨 물건物件인가? 이와 같이 다만 의심疑心할지이다. 만일 이 밖에 다른 말과 다른 사상思想이 있으면 병이니라. 다만 이것이 무슨 물건物件인가만 할지이다.⁵³⁾

용성스님은 시심마 화두 참구법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시심마는 일물(一物)의 소이연(所以然)을 알지 못해서 의심(疑心)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일물이 그렇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해서 의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앞에서 전제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이와 같이 다만 의심하라’고 하면서 ‘이 밖의 다른 말과 사상이 있으면, 병이다’라고 한다. 다만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만 참구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화두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용성스님은 같은 「修心正路」를 두 번에 걸쳐서 게재하고 있다. 첫 번째는 『鮮漢文譯 禪門撮要』 부록 「修心正路」에서는 ‘시심마(是甚麼)’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시심마’라고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 이 「修心正路」는 ‘대각응화 2949년 6월 7일’이라고 말미에 밝히고 있다.⁵⁴⁾ 즉 북방불기로서 서기로는 1922년 6월 7일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覺海日輪』 권3 「修心正路」에서는 ‘시삼마(是甚麼)’라고 표기하고 있다.⁵⁵⁾ 이 저술은 ‘대각응세 2956년 己巳 11월’이라고 말미에 밝히고 있다. 이는 1929년 11월에 해당된다.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

53) 위의 책, p.139.

54) 위의 책, p.158에서는 ‘대각응화 2939년 6월 초7일’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오기이다. 원본에는 ‘이천구백사십구년 유월 초 칠일’로 되어 있다. 백상규 편집, 의역 『鮮漢文譯 禪門撮要』 부록 「修心正路」(백용성대종사총서10, 273),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55) 위의 책, p.461에서는 『각해일륜』 저술과 「육조단경요역」과 함께 ‘대각응세 일천구백오십육년 기사 십일월일’이므로 1929년에 해당된다. 진종 백상규 저술 『覺海日輪』 권3 「修心正路」(백용성대종사총서10, 664),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으나 앞에서는 불(佛)을 각(覺)이라고 표현하여 불성(佛性)을 각성(覺性)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시심마(是甚麼)’를 ‘시삼마(是甚麼)’라고 하였으나 왜 굳이 ‘시심마’를 ‘시삼마’라고 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아마도 당시에 ‘시심마’라고 하기보다 ‘시삼마’라고 읽지 않았는지 추정할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 『청공원일(晴空圓日)』 「15.論心功」에서도 ‘是什麼’ 화두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이 저술은 본래 한자로 된 것을 『백용성 대종사 총서』에서는 번역서와 원문자료를 싣고 있다. 번역에서는 ‘是什麼’를 ‘이뭇고’로 하고 있으므로 독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노파심절에서 ‘시심마(是甚麼)’를 ‘이뭇고’라고 한 것은 용성스님 본인의 뜻이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그러나 명준스님은 용성스님의 『修心正路』를 인용하면서 “이뭇고와 是什麼가 병기 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에 대한 한문 문구인 ‘저개시심마물(這箇是甚麼物)의 화두를 줄여서 ‘是什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음에도”라고 하면서 성철스님의 『간화정로』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다고 한다.⁵⁶⁾

용성스님은 『晴空圓日』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백운자가 묻기를,
관법觀法 수행 말고, 간단하고 쉬운 수행법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용성이 대답하기를,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반조返照’이고, 둘째는 ‘화두 의심(疑話)’이다.
‘반조’라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단정하게 하여 앉되, 혹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거둬들이고 (밖으로 향하는) 청각작용을 (안으로) 되돌리기도 하며, 혹은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안으로) 되돌

56) 명준, 「碧巖錄 ‘是什麼’의 用處에 관한 一考」, 『禪學』 52호, 한국선학회, 2019, 재인용, p.113.

리고 (밖으로 흐르는 의식작용을 안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섬세하고 면밀하게 반조하되 행·주·좌·와·어·묵·동·정에 철저하게 정교롭게 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계속하여)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그 이치가 자연히 빛난다.

또, ‘회두 의심(疑話)’이라는 것은 육조 혜능 대감이신 성사聖師께서 이르시기를,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떠받치며, 밝기는 해와 같고 어둡기는 칠혹과도 같다. (내가) 움직이는 가운데에 항상 있으나, 움직이는 가운데 얻을 수 없는 것, 이 뿔고’라고 하신 것이다. ‘이뿔고’에서 ‘이’는 ‘한 물건’의 모양을 지칭하신 것이고, ‘뿔고’는 의심을 일으키는 모양이다.

‘한 물건’이 무슨 존재(所以然)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크게 일으켜 한 순간도 잊지 않으면 자연 (의심에서) 말끔하게 벗어날 기약이 있을 것이다.⁵⁷⁾

용성스님은 첫째는 반조(返照)이고, 둘째는 의화(疑話)라고 하였다. 여기서 반조란 묵조선(默照禪)의 좌선(坐禪)을 의미하며, 의화는 간화선(看話禪)의 참선(參禪)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의화(疑話)의 시작을 육조혜능의 일물(一物)이 ‘그렇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하기 때문 의심을 크게 일으키고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 자연히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일물(一物)에서 근원을 찾고 있다. ‘시삼마(是什麼)’에서 ‘시(是)’는 ‘한 물건의 모양을 지칭하며’, ‘삼마(什麼)’는 ‘의심을 일으키는

57) 백상규 저, 『청공원일(淸空圓日)』 「15.論心功」(백용성대종사총서1, 742),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白雲子 | 問曰觀法修行之外에 有何簡易之法乎잇가? 龍城曰有二門하니 一曰返照요 二曰疑話也니라. 返照者는正心端坐하야或收視而返聽하며或反思而逆流하야 細細密密히 返照하되 行住坐臥語默動靜에 專精不忘이니 時節因緣이 到來하면 其理가自彰也니라.

又疑話者는 大鑑聖師云吾有一物호되 上柱天하고 下柱地하며 明如日黑似漆하야 常在動用中이나 動用中에 收不得者는什麼오하시니 是者는 指一物之樣子也오 什麼者는起疑之樣子也니라.

不知一物之所以然故로大起疑情하야念念不忘하면自有透脫之期하리라.”

* ‘所以然’을 ‘무슨 존재’라고 번역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된 까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모양'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백용성대종사총서』의 번역에서는 '시심마(是什麼)'를 '이뵈고'라고 번역하였다. 물론 여기서 한자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심마(是什麼)'를 '이뵈고'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겠지만, 용성스님은 시심마(是什麼)를 '이뵈고'라고는 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라고 의심하라고 하였다. 『淸空圓日』의 원본을 참고하면 더욱 명확해진다.⁵⁸⁾ 이어서 시심마(是什麼)가 공안(公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송나라의) 영은보제靈隱普濟(1179~1253) 선사께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소멸하는 것을 두고 생사에 윤회한다고 한다. 생사에 윤회하면서도 온 힘을 다해 공안(이뵈고)을 들어야 한다. 생각의 일어남과 소멸이 사라진 자리를 고요함(寂)이라 하고, 고요한 속에서도 공안이 어둡지 않은 것을 신령스러움(靈)이라 한다. 이처럼 공하고 고요하고 신령스런 앎(空寂靈知)이 무너지지도 않고 (번뇌와) 뒤섞이지도 않으면 반드시 완전한 깨침이 있게 된다'고 하셨다.

마음을 닦고 공력功力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해일륜覺海日輪』에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략하게만 기록하였다.⁵⁹⁾

용성스님은 송나라 영은보제선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생사윤회하는 가운데도 공안(公案)(是什麼也)을 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번역서에서는 '이뵈고'라고 하였지만 원문에는 '시심마(是甚麼)'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안이라 하면서 괄호를 하여 시심마(是什麼)라고 표기까지 해두고 있다. 그러므로 시심마 공안을 들어 고요한 속에서도 공안이 어둡지 않으면 영(靈)이라 하였고, 여기서도 무너지지 않고,

58) 백상규 저, 『淸空圓日』(백용성대종사총서 9,569),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59) 백상규 저, 『淸공원일(淸空圓日)』 「15.論心功」(백용성대종사총서1, 743),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普濟正士云念起念滅이 謂之生死니 當生死之際하야 盡力提起公案是什麼也이니 起滅卽盡處를 謂之寂요 寂中不昧公案을 謂之靈이니 如是空寂靈知가 無壞無雜하야사 必有大悟也라 하니라. 修心用功之法을於覺海日輪에詳記故로 略錄하노라.”

번뇌와 뒤섞이지 않으면 반드시 완전한 깨침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심마(是什麼)가 공안(公案)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4. ‘이뵈꼬’ 화두의 실참법

성철스님은 ‘이뵈꼬’ 화두에 대하여 『성철스님 화두 참선법』에서 자세하게 설하고 있다.

‘이뵈꼬’ 화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뵈꼬’ 화두를 든다고 하면 그저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이 무엇이고?”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 식이 되어 버립니다. …(중략)… 그래서 ‘이뵈꼬’를 할 때는 이 병폐 저 병폐를 없애기 위해 예전 조사스님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이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해야 들여다볼 수도 없고 경계에 따라서 이리 저리 따라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⁶⁰⁾

‘이뵈꼬’⁶¹⁾라고 한 분은 성철스님인 것 같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뵈꼬’가 아니라 전제어인 마음도, 물건도,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이고? 를 참구하라고 한다.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다시 한 번 화두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내가 화두를 알려주겠습니다.

60) 원택 위음, 『성철스님 화두 참선법』, 김영사, 2006, p.61.

61) 성철스님은 경상도 사투리로 ‘이뵈꼬’를 ‘이뵈꼬’라고 한 것 같다. 위의 책에서는 법문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다보니 ‘이뵈꼬’로 표기하고 있다.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내가 일러준 이 화두의 뜻을 바로 알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자성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화두를 잘못 알고 “마음이라 하면 어떻고 물건이라 하면 어떻고 부처라 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마음속에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의심을 지어 가야 합니다.⁶²⁾

성철스님은 대중 법문에서 직접 화두를 주겠다고 하면서 ‘마음도, 물건도,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이뉘꼬’를 참구하라고 한다. 경계에 끄달려서 볼 때마다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하면 잘못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음이 산만해지므로 옛조사의 말에 중심을 두고 ‘이뉘꼬’를 하라고 한다. 이러한 당부는 뒤에 『지상문답』에서도 이어지고 있다.⁶³⁾

근래에 월암스님은 『看話正路』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청허의 『선가귀감』에 시설된 이 공안법문이 그대로 용성의 이뉘꼬? 화두에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보면 이뉘꼬? 화두는 우리나라에서 근대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근거 없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 조사선의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사상사에서 면면부절 이어져 내려온 조사항구로서 본참공안(本參公案)이라는 것이 확실해진다.⁶⁴⁾

월암스님은 ‘이뉘꼬’ 화두의 연원을 중국조사선의 本來無一物에 두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 면면이 이어져 왔다고 한다. 그는 “근세에 와서 ‘이뉘꼬’ 화두를 수선자들에게 정식으로 제시한 분은 경허와 용성이다. 사실 두 선사는 근세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라고 일컫는 분들이다. 이

62) 위의 책, p.195.

63) 위의 책, pp.203-206.

64) 월암, 『看話正路』, 클리어마인드, 2판, 2009, p.483.

두 분의 선사에 의해 전통적으로 선문에 전해져 내려오던 시삼마(是甚麼: 이뭇고)의 화두가 다시 정립되어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⁵⁾고 주장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성본스님의 중국이나 고려, 조선, 일본에도 없던 것이 근대 와서 참구되었으며, ‘이뭇고’를 참구하여 수행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 설과는 상반된다. 논지는 앞에서 용성스님이 밝힌 바와 같이 육조혜능에서부터 그 근거를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와 전국선원수좌회에서 공동으로 편찬한 『간화선』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 뭇고(是甚麼)?’ 화두 같으면 이렇다.

“밥 먹고 옷 입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놈, 언제 어디서나 소소영영(昭昭靈靈)한 주인공 이놈이 무엇인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

“부모미생전 나의 본래면목이 무엇인고?”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뭇고?’ 화두는 앞에 든 여러 가지 중 하나만 택해 의심을 지어 가면 된다. 하나더 부연하자면 전제를 통해 화두를 들 때는 한 전제만 들어야 한다. 물론 그 전제 사이에 우열의 차이는 없다. 하나만 택해 간절히 들면 된다. 단제만 들면서 ‘이 뭇고?’ 할 때는 ‘이’를 약간 길게 하면서 마음 속으로 ‘이-’ 하는 이 놈이 ‘뭇꼬?’ 하며 의심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조금 막연하지만 ‘이- 뭐- 고?’ 하면서 의심을 길고 간절하게 가져가는 것도 요령이다. 곧 전제는 간단히 해서 그것이 망상의 근원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⁶⁶⁾

이 책은 2005년에 초판이 출판 되었으나 옛 조사들의 가르침을 중국

65) 월암, 『친절한 간화선』, 담엔북스, 2012, p.323.

66)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전국선원수좌회 편저, 『간화선』, 조계종출판사, 2015, 개정판, p.228.

선사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한국간화선의 특색을 들어낼 수 없어서 인 용사례를 우리나라 선사들의 가르침으로 대체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초판에서 각 선원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선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증보 재판을 출간하였다. 종단 교육원의 불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었지만, 특히 현재 한국 각 선원에서 참선수행하는 선원수좌회에서 대표를 선정 하여 편찬위원회 참석하여 실참하는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이뵈고’ 화두에 대한 몇 가지 특색이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 ‘이뵈고’라고 하여 ‘이’를 띄우지 않고 붙여서 사용하였지만, 여기서는 ‘이’와 ‘뵈고?’를 띄워서 표기하고 있다. 왜 그렇게 표기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이뵈고?’가 ‘이 뵈고?’로 표기 하므로 ‘이’를 한 단어로 보고 ‘뵈고?’도 다른 단어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참구방법에서 “‘이’를 약간 길게 하면서 마음 속으로 ‘이-’ 하는 이 높이 ‘뵈고?’하면서 의심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조금 막연하지만 ‘이-뵈-고?’ 하면서 길고 간절하게 가져가는 것도 요령이다”고 한다. 이는 참선수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가미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은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할 때 一字念佛처럼 ‘나-’ ‘무-’ ‘아-’ ‘미-’ ‘타-’ ‘불-’과 같이 引聲念佛로 길게 뽑아 집중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더구나 염불선에서 ‘염불하는 자는 누구인가?(念佛者是誰)’를 참구하는 것과도 유사한 수행방법이다. 논자는 현재 한국선원에서 ‘이뵈고?’ 화두가 이와 같이 수행지도 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 하고자함에 있다.

이상에서 월산스님의 참구화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월산스님이 참구한 화두가 ‘이뵈고’이다 보니 최근에 ‘이뵈고’ 화두에 대한 진위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를 소개하고 잘못됨을 밝히는 과정에서 문장이 장황해졌다.

첫째, 월산스님은 1945년 만공스님으로부터 ‘이뵈고’ 화두를 받아 선

문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별로 깊이 참구하지 않다가 1946년 경 완도의 바닷가에서 금오스님으로부터 ‘이 돌맹이는 마음 안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 라고 세 번에 걸쳐 다그치면서 묻는데 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 ‘돌맹이 화두’ ‘이뵈고’의 문제를 가지고 22년 동안 오매불망 화두에 전념하다가 1968년 스승인 금오스님의 임종직전에 답을 내어놓고 인가를 받았다. 이 화두를 들고 청도 적천사 도솔암 토굴에서 가난 속에서 처절한 수행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가난과 청빈 속에서도 탁발 하여 토굴의 양식보다 다리 밑의 걸인들에게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가난과 검소가 몸에 밴 월산스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비교적 여유 있는 불국사의 주지를 하면서도 석굴암에서의 토굴생활과 불국선원에서 수좌들과 함께 보냈다. 자신의 토굴을 만들거나 사설 사암 하나 없이 수행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이뵈고’ 화두가 화두가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의 학설을 소개하고 이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뵈고’ 화두의 전제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월산스님도 전제어를 말하면서 ‘이뵈고’를 참구하려고 설법하였다. 그런데 ‘이뵈고’는 화두가 아니며,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도 없던 것이 근래에 와서 이를 화두화 하여 참구하라고 하니 잘못되었다는 학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셋째, 是甚麼 화두의 전개에 대해 역사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용성스님은 육조혜능이 화택신회와의 문답과 남악회양과의 문답에서 연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다가 서산대사 등을 거쳐 근세에 와서 경허스님과 용성스님이 활발하게 ‘是甚麼’, ‘이뵈고’ 화두로 제자들을 접인하였음을 밝혔다. 여기에는 반듯이 전제어가 있으며, 이를 단순화 시켜서 ‘이뵈고’ 하라고 지도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넷째, 현대 우리나라 선원에서 ‘이뵈고’ 화두의 실참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성철스님의 ‘이뵈고’ 화두의 실참지도 방법과, 종단과 수좌회에서 편찬한 『간화선』에서 게재된 것을 소개 하였다. 현재 선원에서 ‘이뵈

고'의 실참수행방법은 선원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월산스님의 '이뒹고' 화두법이 잘못되지 않았을 밝혔으며, 철저한 수행으로 덕숭선맥을 계승한 선지식의 수행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월산스님의 선사상 중 일부를 논구해보았다. 이번 논문에서는 월산스님의 선수행과정과 참구화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수행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1945년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으로부터 '이뒹고' 화두를 받아 정진하였다. 두 번째는 금오스님으로부터 '돌맹이 화두' 이뒹고를 재점검 받으면서 용맹정진의 결심을 굳히게 된다. 세 번째는 1948년 경 봉암사결사에 참석하여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공주규약(共住規約)대로 수행하였다. 네 번째는 1953년 청도 적천사 도솔암 토굴에서 가난과 허기로 철저히 홀로 수행정진에 전념하였다. 여기서 큰 힘을 얻고 오로지 '이뒹고' 화두에만 몰두하였다. 다섯 번째는 1968년 10월 금오스님의 입적을 앞두고 오도송을 읊어 경허스님으로부터 전해져온 덕숭문중의 선맥을 계승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 1974년 불국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석굴암에서 토굴수행과 불국선원을 개창하여 후학을 지도하였다.

다음으로 월산스님의 참구화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월산스님은 1945년 만공스님으로부터 '이뒹고' 화두를 받아 선문에 들게 되었다. '이뒹고' 화두를 참구하면서 철저한 수행정진한 끝에 22년 만에 금오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월산스님의 삶과 수행은 '이뒹고'가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이뵈고’ 화두가 화두가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의 학설을 소개하고 이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뵈고’ 화두의 전제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월산스님도 전제어를 말하면서 ‘이뵈고’를 참구하라고 설법하였다. 그런데 ‘이뵈고’는 화두가 아니라고 하는 학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셋째, 시심마(是甚麼) 화두의 전개에 대해 역사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용성스님은 육조혜능으로부터 그 연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다가 서산대사 등을 거쳐 근세에 와서 경허스님과 용성스님이 활발하게 ‘시심마(是甚麼)’, ‘이뵈고’ 화두로 제자들을 접인하였음을 밝혔다. 여기에는 반듯이 전제어가 있으며, 이를 단순화 시켜서 ‘이뵈고’하라고 지도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넷째, 현대 우리나라 선원에서 ‘이뵈고’ 화두의 실참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성철스님의 ‘이뵈고’ 화두의 실참지도 방법과, 종단과 수좌회에서 편찬한 『간화선』에서 게재된 것을 소개하였다. 현재 선원에서 ‘이뵈고’의 실참수행 방법은 선원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월산스님의 ‘이뵈고’ 화두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밝혔으며, 처절한 수행으로 덕숭선맥을 계승한 선지식의 수행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참고문헌

- 宗寶編 『六祖大師法寶壇經』(대정장48)
- 徑山沙門語風圓信, 無地地主人郭凝之 編集 『金陵清涼院文益禪師語錄』(대정장47)
- 慧諶 述 『禪門拈頌集』 권15(고려장46)
- 慧諶, 覺雲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 권(한불전5)
- 月山門徒會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개정판.
- 智冠 編, 「慶州 佛國寺 聖林堂 月山大禪師碑文」,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0.
- 聖林堂 月山大宗師之碑, 불국사 소개.
- 최석환 인터뷰 「참선만이 살길이다」 『불교춘추』 3호, 불교춘추사, 1996, 5.
- 최석환, 「덕숭산 선맥을 이어온 큰스승 月山 선사」 『선문화』 4월호, 선문화사, 2009, 4.
- 단국대학교 출판부, 『漢韓大辭典』.
- 智冠 編, 『伽山佛教大辭林』 권14,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13, 3.
- 이상은 감수,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990.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전국선원수좌회 편저 『간화선』, 조계종출판사, 2015 개정판.
- 백상규 편집·의역 『鮮漢文譯禪門撮要』 부록 「修心正路」(백용성대중사총서, 2),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 백상규 저, 『청공원일(淸空圓日)』 「15.論心功」(백용성대중사총서 1,742),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 진중 백상규 저술, 『覺海日輪』 권3 「修心正路」(백용성대중사총서 10,664),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 원택 엮음, 『성철스님 화두 참선법』, 김영사, 2006.
- 월암, 『看話正路』, 클리어마인드, 2판, 2009.
- _____, 『친절한 간화선』, 담엔북스, 2012.
- 정성분, 『간화선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 『한국근현대 불교자료전집』 권68, 「비구승단 발족약사」
- 김광식, 「전국비구승대표자 대회의 시말」,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김광식, 「봉암사결사의 재조명」,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불교』, 불학연구소, 2008.

_____,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57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1.

「1947년 봉암사결사」 『수다라』, 10집.

「혜암스님을 찾아서」 『고경』 2호, 불기 2540년 여름호.

명준, 「碧巖錄 ‘是什麼’의 用處에 관한 一考」, 『禪學』 52호, 한국선학회, 2019, 4.

Abstract

Thought of Seon by Wolsan Buddhist Monk

- Focused on its practice process and investigation of Whadu(話頭), the topic of meditation

Han, Tae-sik(Bo-kwang)

(Director, Institute of Maha Bodhi Though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part of the Seon Thought (禪思想) by Wolsan, a Buddhist Monk (1913-1997), especially on the process of his practice and investigation of Whadu (話頭), the topic of meditation.

Wolsan devoted himself to ‘*What is this?*’ and ‘*Stone Speech*’, inherited from Man-gong (滿空) and Geumo (金烏) respectively. He dwelled in tranquility among poverty and honesty in the basement of the Jeok-cheon Temple (碩川寺) after ‘Bongamsa Temple Association’ in 1948 and 1953.

After that, he succeeded *Deoksung* Buddhist order following the approval of Geumo (金烏) in 1968 and devoted himself to its practice at the Seokgulam Grotto Hermitage and BulgukSeon Monastery since he was appointed as the abbot in 1974.

He also criticized theorists who insisted that ‘*What is this?*’ is not Seon Buddhism and revealed ‘*What is this?*’ was developed by Huineng, the Sixth Patriarch.

Key words

Wolsan, Geumo (金烏), Man-gong (滿空), Yong-sung (龍城), Sisimma (是甚麼), What is this?, Hwadu (話頭), Stone as topic of meditation, basement of Jeok-cheon Temple, Seokgulam (石窟庵), BulgukSeon Monastery, Bulguk Temple